

자율차 대신 비행자동차… 현대차, NASA 출신 박사 영입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부 신설 부사장에 항공 전문가 신재원 박사 로드맵 세우고 안전기술 역량 집중 미래차 시장 주도권 확보에 포커스



신재원 박사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경영 전선 전면에 뛰어들면서 미래 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과거 패스트팔로어로 불리며 선발주자들의 뒤를 쫓던 모습과 달리 최근 미래 모빌리티 부문에서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는 등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추진을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9월 30일 도심용 항공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과 사업추진을 전담하는 ‘UAM(Urban Air Mobility) 사업부’를 신설하고 NASA 항공연구총괄본부 본부장을 역임한 신재원 박사를 사업부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신 부사장은 1989년 NASA 산하 글렌리서치센터에 입사해 항공안전과 항법 시스템 연구개발을 담당했다. 1998

년 글렌리서치센터 항공안전기술개발 실 실장에 오른데 이어 2001년 항공연 구본부 본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항공연 구부문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지난 2004년 NASA 워싱턴본부 항공연구총괄본부 부본부장으로 승진해 항공부문 기초연구 강화와 차세대 항공 운송 시스템 개발을 맡았고 2008년에는 동양인 최초로 NASA 최고위직인 항공연구총괄본부 본부장으로 승진해 항공우주국의 모든 항공연구와 기술개발을 관리하는 최고 위치에 올랐다.

신 부사장은 플라잉 카(flying car) 와 무인항공시스템(UAS·Unmanned Aerial System), 초음속 비행기 등 신 개념 미래항공 연구와 전략방향을 설정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저공비행용 교통시스템 개발을 위해 미국 연방항공청(FAA)을 비롯해 구글과 우버, 보잉, GE, 아마존 등 다양 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을 개척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신 부사장은 현대차그룹에서도 도심 항

공 모빌리티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한 전 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항공기체 개발을 위한 형상설계와 비행제어 소프트 웨어, 안전기술 등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현대차도 배터리와 모터, 경량소재, 자율주행 등 자동차 제조 핵심기술을 UAM 사업에도 적극 활용해 사업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현대차그룹이 최근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신사업 중 하나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비행자동차가 레벨 5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보다 먼저 상용화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모건스탠리는 오는 2040년까지 글로벌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이 1조 5000 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에는 보잉과 에어버스, 아우디 등 항공기와 자동차 제작사 뿐 아니라 구글과 우버 등 세계적인 기술기업과 아마존, DHL, UPS 등의 전자상거래와 물류기업, 170여개 스타트업 등이 항공기체 개발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도 지난해 미국의 드론제조사 톱 플라이트 테크놀로지스에 투자하는

등 하늘을 나는 차를 개발하는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인류가 지금 까지 실현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며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지난 100년 이상 발전해온 항공산업과 자동차산업은 물론 도심 교통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분야”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현대차그룹은 미래 완전자율주행 시장 선점을 위해 앱티브와 손잡은 바 있다. 앱티브는 세계 3위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우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뛰어나다면 다른 완성차 메이커들이 이 조인트벤처(JV)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량 생산 시점에 대해선 2024년 본격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2022년 말쯤 완성차에 장착해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것이 목표다”며 “성능 뿐만 아니라 원가의 측면에서도 만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자율주행 버스’ 첫 상용화는 세종시

중기부, 자율차 실증사업 점검
안전성 등 살핀 후 2022년 운행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첫 시동이 걸렸다.

세종시는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 본격 시행하면서 지난해 7월 처음으로 지정된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이다.

실증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세종시에는 2022년께 일반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버스가 다른 차량과 함께 도로를 달리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시는 30일 세종시에서 자율차 실증사업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김학도 중기부 차관과 이준희 세종특별시장이 30일 세종시에서 진행한 자율주행차 실증사업 현장점검을 하며 자율차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과 이준희 세종특별시장이 30일 세종시에서 진행한 자율주행차 실증사업 현장점검을 하며 자율차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중기부

차량은 14인승인 현대 쏘나타를 개조한 차량으로 라이다 센서(5개), 레이더 센서(4개), 카메라 센서(3개) 등 자율주행 핵심부품을 장착했다.

이 차량은 이날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산학연결러스터센터를 출발해 합강교차로를 거쳐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왕복

7.7km 구간을 약 20분에 걸쳐 주행했다.

김학도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규제를 뛰어넘어 혁신에 도달하기 위한 활로가 돼 신기술, 신산업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먼저 제시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먼저 고려한 규제 혁신이 우선인 만큼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학도 차관과 이준희 시장 등 9명은 이날 자율차에 직접 시승해 운행하며 안전성 등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시작했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지난 7월 지정된 7곳 구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이행과 안전대책 등을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기술전문가, 관련 부처 만 등으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자율차 운행을 위한 첫 발을 내딛은 세종시는 내년까지 자율차에 대한 안전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2021년에는 실증구간과 서비스를 확대해 2022년 이후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준희 시장은 “내년 연말엔 BRT도로 및 도심 공원 내에서 시민들에게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성공적이고 안전한 실증을 통해 세종시를 ‘자율주행 상용화 거점 도시’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롯데, 627억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조성

계열사·KDB산업銀 참여
유통·물류분야 집중 투자

롯데는 627억원 규모의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롯데-KDB 오픈이노베이션 펀드’를 조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투자조합은 롯데의 스타트업 투자법인인 롯데액셀러레이터 설립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이번 펀드 출자에는 롯데쇼핑, 롯데G RS, 롯데하이마트, 롯데홈쇼핑, 코리아세븐, 롯데면세점,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정보통신, 롯데액셀러레이터

등 롯데그룹 계열사와 KDB산업은행이 참여했다. 롯데액셀러레이터가 외부 투자와 함께 조합을 운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펀드 결성으로 롯데액셀러레이터는 총 1000억원 규모의 운영자산을 달성하게 됐다. 지난해 6월 각각 272억원, 21억원 규모의 ‘롯데스타트업펀드1호’와 ‘롯데시내벤처펀드1호’를 조성한 데 이어 이번 펀드 결성으로 투자 범위가 기존 초기 투자에서 성장 궤도에 진입한 스타트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롯데는 투자와 더불어 롯데그룹의 광

범위한 소비자 유동채널 및 물류시스템을 연계해 다방면으로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시아, 유럽 등 해외

에 진출해 있는 그룹사를 통해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돋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롯데액셀러레이터는 이번 펀드뿐만 아니라 화학, 식음료, 문화 콘텐츠 분야에 집중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펀드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지난 8월 이스라엘을 방문해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을 만나 이스라엘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방안을 논의하며 스타트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신 회장은 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에 이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스타트업과 신기술업체, 연구소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롯데와의 시너지 창출 및 벤처마 킹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백인웅 기자

日 도레이도 SK에 소송 배터리 특허전 새 국면

LG화학·도레이 vs SK이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소송이 더 격화되는 모양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 1위 침단소재 기업인 일본 도레이 인더스트리가 공동특허권자격으로 LG화학과 함께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도레이 인더스트리는 지난 26일(현지시간) LG화학과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 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도레이 인더스트리는 이번 특허소송 원고에 이름을 옮린 배경에는 LG화학과 공동특허인 2차 전지 핵심소재 SRS의 미국특허를 SK이노베이션측이 침해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 기술은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 구조체를 형성해 성능저하 없이도 배터리 안정성을 강화시킨다. LG화학과 도레이 인더스트리는 SRS 특허가 원천특허에 해당해 회피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SK이노베이션 특허소송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에 대해 합의서 위반을 포함해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며 “특히 지난 2004년 당시 토너(당시 토너)와 함께 이번 소송 원고로 참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수습기자